**[11] 통상 분야가 정해지면 해당 분야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 반면, 마이크로서비스 분야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은 제한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.**

하나의 서비스에서 여러 기능들을 각각 분리해서 구현한다.

서로 다른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, 자신의 팀에서 가장 잘하는 언어로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택에 제한이 없다. 이 사람들이 잘 짜는 언어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어떤 언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언어를 강요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. 잘게 쪼개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잘 짜며 되는 거지 다른 것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. 이런 방식을 Polyglot 방식이라고 한다. 분야가 정해지면 언어를 추천하는 것과는 반대이다. 그렇기에 언어 선택에 제한이 많지 않은 요즘의 추세이다.